

3면에 이어서

반대생활이 곧 영생의 길

여러분들은 항상 나를 미워하는 생활, 나를 짓이기는 생활, 내가 좋아하는 건 안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려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 같이 나를 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나쁜 놈의 새끼야!' 하고 같이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 이긴자 구세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영생의 길인 고로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맡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허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이 제단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생의 길을 똑바로 가야지 비뚤빼뚤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길은 나를 짓이기고 반대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되는 길이고, 영원무궁토록 천당에서 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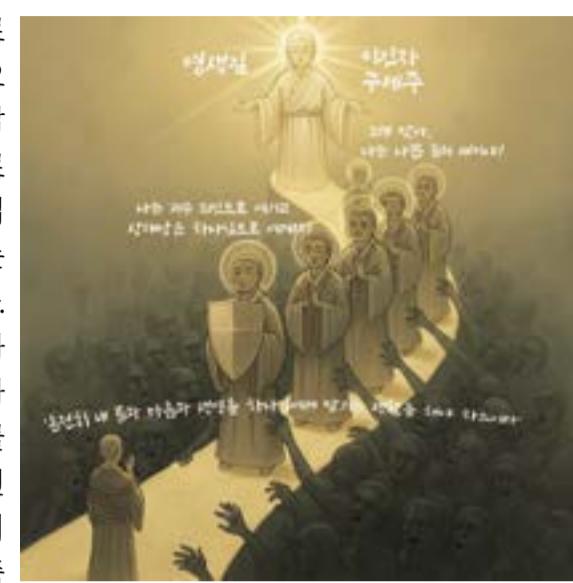
고로우니까 웃는 것입니다. 이게 반

대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괴로 우면 고소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웃으면 피가 막아지고 웃으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그런고로 계속해서 웃는 생활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웃으면 피가 막아지고, 피가 막아지면 피 속에서 생명자가 생기는데 그때 나오는 분비물이 앤돌핀입니다. 앤돌핀이 나오면 T임파구가 조성되어서 병균을 죽이고 병마를 죽

이는 고로 병이 낫는다고 이상구 박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구 박사는 웃으면 앤돌핀이 나오는 것만 알지, 웃으면 왜 앤돌핀이 나오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생명자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인데 웃으면 왜 그 물질이 나오느냐 하면 웃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체력의 영이요 항상 즐거워하는 영인 고로 웃으면 하나님의 영이 자꾸자꾸 커지게 되면서 생명자의 물질이 피 속에서 생겨 가지고 점점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그리서 이기심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을 몰라야 돈이 따른다.'는 말이 있는데, 욕심이 없어야 재물이 따르지, 욕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물이 안 따른다는 말인 것입니다. 욕심이라는 건 나라는 의식의 산물인 고로 욕심을 자꾸 부리면 나라는 의식이 점점 강해지지만, 나를 미워하면 욕심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면 고소하게 생각하고 웃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1년 7월 9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목 기자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사람 몸의 빛은 생명’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은 사람이 본래 빛의 신인 하나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고로 생명의 신인 하나님은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빛이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대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빛 때문에 생존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체가 되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구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발산되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고로 사람이 하나님에 되면 빛으로 화하게 되어 있다. 빛으로 화하면 현재의 사람의 형상은 없어진다.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화되면 영원무궁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⑤

‘집콕’ 하더라도 요가로 실내에서 면역력 업!!

요가를 ‘운동’이라고 정의하기엔 족하다. 명상과 호흡이 결합된 몸과 마음의 수련이라 보는게 옳다. 정적인 수련

과 동적인 운동 동작이 동시에 진행되면 서 몸의 균형을 바로 잡아간다. 자세가 바르게 되어 자연스럽게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요가 동작은 관절이나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아 중장년층에게 훌륭한 건강관리 솔루션이 되고 있다.

심신 수양 관절보호 균력강화 성인 병 예방!

동작①: 엉덩이, 다리근육 강화. 하늘을 보고 바르게 누워 양발을 골반 너비로 확장, 무릎을 굽혀 세운다.

동작②: 자율신경 균형에 도움. 엉덩이 가까이 발을 가져오고 양손은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 편안하게 몸통 옆에둔다. 숨을 들이 마시며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리고 정강이를 바깥쪽으로, 가슴은 대각선 방향으로 밀어낸다. 가능하다면 양팔을 밖으로 회전시켜 양손을 등 뒤 안쪽으로 모아 깍지를 끼워 가슴을 한번 더 밀어낸다. 호흡과 함께 5회.

동작③: 팔과 다리 균력 강화. 양손을 어깨 너비로 확장 손바닥을 바닥에 밀착시킨다. 엎드린 자세에서 양손바닥을 밀어 양다리를 들어 올린다. 무릎을 쭉 펴고 손부

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척추를 곧게 펴고 호흡한다.

동작④: 전신혈액순환. 한쪽 다리를 천장 쪽으로 쭉 뻗고 호흡한다. 10~20초 유지. 양쪽 고대로 3세트.*



동작①



동작②



동작③



터 엉덩이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척추를 곧게 펴고 호흡한다.

질문: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마귀가 모방력만 있는 게 아니라 숨는 기술도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나라는 의식으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참조 |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전도 문답 [62]

질문: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편에는 “천지상쟁흔돈시(天地相爭混沌時)에 천신부(天神負)이 지귀승(地鬼勝)”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변: 태초에 마귀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기운이 없어서 진 게 아니고 또 마귀가 기운이 세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면 속임수로 이겼는데, 바로 마귀가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속여 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2001.3.17. 이진자 말씀)

질문: 마귀가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모방력을 가지고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성경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답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을 때, 마귀가 들린 술객도 모세와 같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2002.3.18. 이진자 말씀)

태초에 아담과 해와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본 것입니다. 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간 것입니다.

질문: 아담 하나님과 해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들어온 마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답변: 비록 마귀가 뱀과 같은 교활한 지혜, 즉 속임수와 모방력으로 하나님을 이겼지만, 마귀의 약점은 인내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진자 구세주가 이인 것도 기운이 세서 이인 것이 아니고, 집중력과 인내력으로써 이인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그대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변덕 부리는 성품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강한 사람은 저절로 이랬다 저렸다 변덕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기에 변하지 않는 마음과 꾸준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기적인 영이지만 하나님은 희생의 영입니다.*



격암유록 新解설

수정판 제91회

松家田(一) 송가전

鄭季問答三秘文 정아문답삼수비문을
大綱 대강푸라이르리라
自古至今未世 자고자금말세까지
三數秘 삼수비로 미쳤었네
浮木節木虎運 부목절목호운에도
似草不草傳 사초불초전했으며
女人戴禾殺我者 여인대화살이자로
兵在其中人不矢口 병재기중인불시구
畫虎顧松如松之盛 화호고송여승자성
二才前後從末生 이재전후종밀생을
虎性在山十八加公 호성자산십팔가공
水龍一數當運 수룡일수당운이라
人口有土殺我理 인구유토살이리로
重生深谷依松生 중생심곡의승생을
見人猶覲見木即止 견인창궐견목즉지
畫犢即音松下止 화독즉음송하저자라
初亂已去再胡亂, 초란이거재호란에
人心幻劫暫間 인심환겁잠간일세

정감과 이심이 서로 묻고 담한 삼비 문(三秘文=세 운수에 들어있는 비결문)을 풀어 이르리라. 예로부터 지금의 말세까지 삼수비(三數秘)로 미쳤었네. 부목절목(浮木節木) 호운(虎運)에도 풀 같으나 풀이 아닌 소나무(송)가 나를 살린다고 전하였느니라. 나를 죽이는 것 이 왜(倭=女人戴禾)이며 전쟁이 그 가운데 있으니 사람(애놈)인 줄 모르느니라. 그림 속의 호랑이가 소나무를 돌아보는데 소나무가 무성한 것 같으니라. 재(才)자를 앞뒤로 하면 목(木)가 나오는데 그 나무를 따라야 임진왜란 때는 살 수가 있느니라.

호랑이의 성품은 산에 있는 소나무를 좋아하니 소나무를 따르면 살게 되니 이것이 임진왜란(수룡水龍=임진)으로 천재(天災)에 대한 목숨에 걸친 것입니다.

앉아 있는 것이 나를 죽이는 이치이니 집 밖으로 나가서(重山=出) 깊은 산골 짜기의 소나무에 의지하면 살 수 있으니 호랑이는 사람을 보면 미처 날뛰고 소나무를 본 즉 멈춰느니라. 그림 속의 독(犢=송아지)은 음(音)이 송아지이니 음이 같은 송하지(松下止=소나무 아래 머물러라. 라는 뜻)이 아니라. 첫 번째 난(亂)인 임진왜란은 이미 지나가고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질길하며 놀라도 잠깐일세.

浮土溫土狗運 부토온토구운에도 似野不野傳 사야불야전했으며 雨下橫山殺我者 우하횡산살아자로 裏在其中天不矢口 이재기증천불시구 畫犢即音松下止 화독즉음송하저자라 兩上左右從土生 양상좌우종토생을 狗性在家豕上加冠 구성재가시상가관 火鼠再數當運 화서재수당운이라 重山不利殺我理 중산불리살아리로 人口有土梨衣生 인구유토량의생을 見雪猶覲見木即止 견인창궐견목즉지 畫犢即音家下止 화견즉음가기금찬병 兩上左右從土生 양상좌우종토생을 狗性在家豕上加冠 구성재가시상가관 火鼠再數當運 화서재수당운이라 重山不利殺我理 중산불리살아리로 人口有土梨衣生 인구유토량의생을 見雪猶覲見木即止 견인창궐견목즉지 畫犢即音家下止 화견즉음가기금찬병 兩上左右從土生 양상좌우종토생을 狗性在家豕上加冠 구성재가시상가관 不毛之獸丁寧 불모지수정녕하다 浮金冷金牛運 부금냉금우운에도 似人不傳 사인불전했으며 小頭無足殺我者 소두무족살아자로 化在其中鬼不知 화재기중기부지자

부토온토구운(浮土溫土狗運)의 병자호란에도 들과 비슷하나 들이 아닌 온돌방에 앉아 피난하라고 전했으며 우하횡산(雨下橫山=설설=눈)이 나를 죽이는 것이며 폭설이 그 가운데 있으니(폭설에 괴롭혀 죽게 됨) 천재(天災)

=폭설)인 것을 모르리라. 그림 속의 개가 처마를 돌아보니 집안에 머물면 천병(千兵)의 원군을 지원받는 것과 같으니 양상좌우종토생(兩上左右從土生) 즉 상하좌우가 흙으로 된 온돌방에 있어야 살 수 있느니라. 개의 성품은 집에서 사는 것이니 병자호란이 두 번째 운수로 되면 살 수 있느니라. 집 밖을 나가 피난하면 불리하니 이것이 나를 죽이는 이치이며 대들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살게 되느니라.

개는 눈을 보면 미친 듯이 날뛰지만 집을 본 즉 멈춰니 그림 속의 강아지(개와 같은 음이 나는 가하지(家下止))는 집 아래에 머물러라. 라는 말이니라. 온 세상에 잡다한 것이 판자는 말세의 운을 당하면 틀림없이 텔 없는 짐승들이 날뛰게 될 것이니 부금(浮金=양금) 냉금(冷金=음금)이 합일한 말세의 운(牛運)에도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천신이 강립한 운(似人不人天神降)이 피난처임을 전했느니라. 소두무족 즉 작은 머리에 발이 없는 것(뱀=마귀)이 나를 죽이는 것 아니 그 속에 조화가 있느니 그것이 귀신인 줄을 모르리라.

畫牛顧溪奄毫曲阜 화중고계암탁곡부

一八于八從金生 일팔우팔종금생을 牛性在野三人一タ 우성재야삼인일석

박명하/고서연구가 010-3912-5953

myunghpark23@naver.com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영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오산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横濱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14679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